



## [소비동향] 美, 전면등교 시작으로 우유 소비 회복세 기대

### - 델타 변이 확산, 12세 미만 백신 비권장이 변수



미국 학교들이 본격 전면등교를 시작함에 따라 우유 소비량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데일리 낙농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역 공립학교 절반 이상이 전면등교수업으로 2학기 개학을 맞고 있는 가운데 우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등교가 중단되고 가정학습이 이어지면서 학교급식을 통한 우유 공급량이 크게 감소했고 가정내 우유 소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유급식 소비량 감소를 상쇄하기는 역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면등교 이후 저소득층 대상 무상학교급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유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는 있으나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백신을 권장하고 있지 않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dairyherd.com, 8월 23일자 >

## [정책동향] 英 일부 전문가, 취약계층 대상 식물성 우유 추가 공급 요청

### - 유당불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정책이라 주장



지난 22일 세계 식물성 우유의 날을 맞아 영국의 식물성 식품 기반 건강 전문가들이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에 식물성 우유를 추가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전문가 그룹은 공개서한을 통해 전 세계 인구의 약 70%가 유당 불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반 우유만 제공하는 것은 유당 흡수 장애 또는 유당 과민증을 가지고 있거나 채식주의를 선택한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정책이라며 두유를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식물성 우유의 건강학적 효능을 강조하고 낙농업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고 언급하며 식물성 대체 우유가 일반 우유에 비해 지속가능한 식품이라고 주장하고, 식물성 대체식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영국 가정의 3분의 1이 식물성 우유를 구입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해당 그룹은 최근 스코틀랜드 정부는 영유아 대상 우유 및 건강간식 지원정책에 무가당 칼슘강화 두유를 추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본받아 취약계층에게도 식물성 우유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 출처 : plantbasednews.org, 8월 22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